

# 벌레떼 들녘 습격...항만·공원도 피해

## I 해충과의 전쟁 ①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에는 요즘 등산객들의 민원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일부 탐방구간의 나무에 점이 짝한 것처럼 보이는 갈색날개매미충 수백 마리가 붙어있는가 하면 무리를 지어 날다니는 통에 집집마다 등산객들이 많다는 것이다.

30도를 훌쩍 웃도는 고온다습한 날씨 속에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해충들로 전국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논밭은 물론 주택, 공원, 항구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에서 해충이 기승을 부리면서 방제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후 탓에 발생면적 준다는데= 농민 고충은 여전갈색날개매미충과 꽃매미, 미국선녀벌레는 고온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습격자'들이다. 과수에 큰 해를 입히는 '돌발해충'으로 불린다. 미국선녀벌레는 작물 즙을 빨아 먹으며 그늘을 병을 유발하고, 갈색날개매미충과 꽃매미는 생육을 저해하거나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수확량이 20~30% 줄어든다고 한다. 과수농가에서는 초봄에 알집을 제거하지만, 돌발해충이 농경지 인근 산림 지역에서 번식하다 보니 방제율은 극히 낮아 여간 골치거리가 아니다.

돌발해충(성충) 발생면적은 2014년 8천864ha에서 지난해 3만879ha로 불과 3년 만에 3.5배로 급증하는 등 피해가 이어져 왔다.

지난 겨울철 불어닥친 혹독한 한파의 영향으로 올해에는 돌발해충 발생이 크게 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월동 면적을 조사하니 갈색날개매미충은 8%, 꽃매미는 10%가량 감소했다"고 말했다. 전남의 올해 갈색날개매미충 발생면적은 지난해 1천344ha보다 21.6%(290ha) 적은 1천54ha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북에서는 발생면적이 지난해 0.8ha에서 올해 17.5ha로 늘었고 강원 지역에서는 원주 일부에서만 발생하던 갈색날개매미충이 춘천, 강릉 등 9개 시·군에서 예찰됐다.

농림 당국의 노력에도 방제에는 한계가 있다. 농경지와 산을 오가며 증식하는 돌발해충의 특성을 고려할 때 목적이



담양군은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으로 인한 산림·농경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병해충 방제작업에 나섰다. /담양군 제공

## 돌발해충에 농민 시름...SFTS·일본뇌염 발생 우려 지난해부터 항만 통해 붉은불개미 유입, 방제 비상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다.

◇목숨 위협하는 진드기·뇌염모기= 야생진드기가 매개하는 SFTS에 감염돼 투병하던 부산 지역의 80대 환자가 지난 5일 사망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충북에서 60대 환자가 이 증상으로 숨진 일이 있다. SFTS는 야생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38~40도의 고열과 함께 혈소판·백혈구 감소,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사망률이 30%에 달한다.

지난해 SFTS에 감염된 272명 중 54명이 숨졌고, 올해에도 지난 5월 말 기준 18명이 감염돼 7명이 목숨을 잃었다.

SFTS 감염은 매년 4~11월 발생하는데 특히 야외 활동을 잦아지는 7~10월에 집중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돗자리를 챙겨 진드기와 접촉을 피하

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 6일에는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됐다.

일본뇌염 매개 모기를 감시하기 위한 전국 10개 지점의 유문등에서 잡힌 누에모기 개체 수는 올해 25주차(6월 17~23일) 기준 1곳당 평균 4천454마리다. 지난해 같은 기간 2천575마리보다 73.2% 증가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리더라도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에 그치지만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번질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 주변의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계 100대 악성해충 붉은불개미 유입= 항만 비상남미가 원산지인 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이 지정한 세계 10대 악성 외래해충이다.

작년 9월 부산항 감만부두 야적장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이달 현재까지 6곳에서 발견됐다.

모두 항구 지역인데, 올해 들어서는 2월 인천항 컨테이너, 5월 부산항 컨테이너, 지난달 평택항 야적장과 부산항 허치슨부두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허치슨부두 야적장의 경우 일개미 3천여 마리, 알 150여 개와 함께 여왕개미가 되기 전의 공주개미 11마리가 발견됐다. 이미 대량 번식을 시작한 것이냐는 우려마저 불거지고 있다.

붉은불개미의 독성은 치명적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 현기증과 호흡곤란, 의식장애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당국은 붉은불개미가 발견될 때마다 살충제를 투약하고 개미 유인용 트랩을 설치하며 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교역이 이뤄지는 항구를 중심으로 추가 유입 위험성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항만업계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컨테이너 내부 실태조사를 하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박승아 기자 tmdk9960@

## '시험지 유출' 학부모·행정실장 출금 신청

고3 기말고사 시험지 빼내...해의 경험 많아 도주 우려

고3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학부모와 행정실장에 대해 출금금지를 신청했다.

1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불구속 입건된 광주 모고등학교 행정실장 A(58) 씨와 유출을 부탁한 학부모 B(52·여) 씨에 대한 출금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해외에 다녀온 경험도 많아 도주 방지 차원에서 출금 조치를 요청했다.

A 씨는 학교운영위원장인 B 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 2일 오후 5시께 학교 행정실에 보관 중인 3학년 기말고사용 시험지를 빼내 같은 날 오후 6시께 B 씨에게 복사본

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학교 운영위원 활동 등을 하며 알고 지내다가 부탁을 한 것이며 금품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휴대전화로 사전에 연락한 정황을 포착하고 시험지를 유출하게 된 경위와 추가 관련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6~10일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B 씨의 아들 C 군이 급우들에게 미리 알려준 일부 문제가 실제로 출제되자 학생들이 의구심을 품고 학교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1일 학교 측으로부터 "시험문제가 유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상구 기자 rkdtkdrn0913@

## "공항에 폭탄 있다" 허위신고 50대 실행

항공기 지연 공무집행방해... "죄질 극히 불량"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허위신고로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킨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서모(5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수사기관에 거짓 신고를 해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고 많은 공항 이용객에게 불안, 공포, 불편함을 안겨줘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고 전과가 많은 점에 비춰 실행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고, 간암 수술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 5월 광주공항에서 "지나가 남성으로부터 비행기에 폭탄을 신고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112로 허위 신고했다.

제주에 사는 서씨는 항공권이 매진돼 돌아갈 수 없게 되자 찾기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승아 기자 tmdk9960@

## 순천 별량터널서 승용차 화재

인명피해 없어

15일 오전 9시 20분께 순천시 별량면 별량 1터널을 지나던 K7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불은 보닛과 차량 앞바퀴 등을 태우고

24분 만에 진화됐다.

차량에는 운전자 한 명만 타고 있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환풍 차량을 이용해 터널에 남은 연기를 배출시키고 있으며 서행 운행을 유도했다. /순천=오승택 기자

## 지리산 계곡서 행락객 물에 빠져

지리산 계곡에서 행락객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오후 2시52분께 구례군 토지면 지리산 피아골 계곡에서 김모(67) 씨가 물에 빠졌다.

이 사고로 김 씨가 119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김 씨가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구례=심건식 기자



# 지역신문을 보면 지역이 제대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을 제일 잘 아는 건 '지역신문'입니다.  
지역신문을 읽는 당신,  
내 고향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문구독, 아는만큼 '힘'이 됩니다.